

6강

칠성본풀이

- 뱀신(蛇神)의 얼굴 '안칠성'과 '뱃칠성'이 가져다주는 풍요

칠성본풀이

- 뱀신(蛇神)의 얼굴 ‘안칠성’ 과 ‘뱃칠성’ 이 가져다주는 풍요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1. 뱀신의 내력, 칠성본풀이

장설룡과 송설룡이 부부인데 부5자로 잘 살아도 오십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절에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나면서 아기씨를 가두고 느진덕정하님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 아기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느진덕정하님은 부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연락하였다.

아기씨는 밖에서 죽을 사경을 당하였는데 마침 불공을 드렸던 절의 중을 만나게 되었다. 중은 아기씨를 단단히 싸서 장설룡 집의 먼 문노릇돌 아래 파묻어 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아기씨를 찾을 수 없어 근심하고 있었는데 중이 오자 행방을 점쳐보라고 부탁하였다. 중은 아기씨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노릇돌을 파 보라고 하였다. 장설룡 대감이 화를 내며 중을 죽이려고 하자 중은 술법으로 달아났다. 이어 노릇돌을 파 보니 아기씨가 정말 있었는데 임신한 몸이어서 양반의 집에 큰일이니 무쇠석함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무쇠석함은 제주로 들어오고 다시 여기저기 마을을 떠다니다가 함덕 마을로 들어갔다. 이때 일곱 잠수가 물질하러 가다가 무쇠석함을 발견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움을 벌였다. 지나가던 송첨지 영감이 이를 보고 석함 안에 든 것은 일곱 잠수가 공평하게 갈라 가지고 상자는 자기 담배상자로 쓰겠다고 하여 싸움을 말렸다.

송첨지 영감이 상자를 열어보니 일곱 마리 뱀이 있었다. 송첨지 영감과

일곱 잠수가 재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헤쳐 던졌는데 그날부터 죽을 사경에 이르렀다. 점을 쳐보니 남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죄라고 하여 칠성새남굿을 하였다. 굿을 하니 병이 좋아지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 이어 칠성당을 마련하여 위하여 가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시게 되어 함덕 마을이 부촌이 되어갔다.

일곱 아기와 아기씨는 함덕 마을을 떠나 여러 마을을 거쳐 제주도성 안으로 찾아갔다. 마침 도성 안 칠성골의 송대장 부인이 이들을 만나 조상으로 모시니 송대장 집이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일곱 아기는 각각 추수할망,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밧칠성 등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인 아기씨는 집 고팡의 안칠성으로 좌정하였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장설룡** : 칠성아기씨의 부. 부부간에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음. 벼슬 살러 간 사이에 칠성아기씨가 중에 의해 임신이 되자 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림
- **송설룡** : 칠성아기씨의 모
- **칠성아기씨** : 장설룡과 송설룡의 딸. 임신이 되어 부모에게 버림 받고 제주도 함덕마을로 들어와 뱀의 몸이 되어 일곱 딸 뱀을 낳음. 함덕마을에서 신으로 제향 받다가 함덕마을을 떠나 제주시 칠성골로 들어와 송대장 집을 부자로 만들어 준 뒤 딸들을 각각 좌정시키고 자신은 고팡을 차지하는 안칠성이 됨
- **절간 중** : 부모를 따라가다가 죽을 사경을 당한 칠성아기씨를 만나 잉태시킴
- **칠성아기의 일곱 딸** : 각각 추수할망,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밧칠성 등을 차지함
- **함덕 일곱 잠수** : 바다에서 함을 발견한 뒤 칠성아기씨를 신으로 모심
- **송첨지 영감** : 바다에서 잠수들이 발견한 함을 열어준 뒤 칠성아기씨를 신으로 모심
- **함덕 급서황하늘** : 함덕마을 당신. 칠성아기씨가 주민들의 제향을 받자 마을에서 쫓아버림

- **함덕 서물할망** : 함덕마을 당신. 칠성아기씨가 주민들의 제향을 받자 마을에서 쫓아버림
- **칠성골 송대장 부인** : 칠성아기씨를 타고난 조상으로 모셔 부자가 됨

심방에 따라 칠성본풀이의 서두에 아이를 얻기 위한 치성(致誠)의 과정에서 북두칠성(북두칠원성군)이 등장하는 대목을 구연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절에 칠성제 불공을 드린다. 북두칠원성군 가운데 원성군이 그 기특한 정성을 생각하여 자신의 수제자를 내려 보내면서 칠성제 제물로 부부를 장님으로 만든다. 마침 병란이 들어 장씨와 송씨를 모두 죽이고자 할 때 부부는 장님이어서 오히려 화를 면한다. 원성군은 수제자를 다시 보내 명주로 눈을 닦아 밝게 하였다. 이에 부부는 다시 제물을 마련하여 칠성제를 드린다. 부부는 소원대로 딸을 얻는다. 이 딸이 칠성아기이고, 나중에 자신도 일곱 딸을 낳는다. 이 내용은 어느 한 심방만의 개별적 전승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이본(異本)이 여럿이다. 뱀신의 이름도 칠성기도를 통하여 얻었으니 칠성아기라는 것이다. 칠성본풀이의 뱀신 내력에는 북두칠성 화소도 함께 녹아있다.



<사진 9> 칠성 신상 만들기



<사진 10> 칠성 신상

곳판에서는 칠성을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보여주는 무구를 제작한다. 곧 칠성 신상(神像)을 말한다. 칠성 신상은 종이를 접어 만든다. 실제 뱀 한 마리가 꼬리를 들고 앉아 있는 모양을 연출한다. 뱀처럼 길쭉하게 종이를 접어놓고 뱀의 얼굴과 비늘 모양을 섬세하게 그려 신체를

만든다. 신체가 완성되면 쌀을 가득 담은 그릇 위에 올려놓거나, 혹은 채롱에 쌀을 잘 펴서 담고 그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때 날계란을 함께 놓는다. 신상의 입에는 일곱 방울의 쌀을 물려 놓는다. 신앙민들은 칠성본풀이를 통하여 칠성에 대한 내력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신상을 보며 칠성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이 칠성 신상은 알토산의 여드레한집을 상징하기도 한다. 알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를 말한다. 여드레한집은 알토산 본향당인 여드렛당의 당신으로 뱀신이다. 당신의 내력은 토산여드렛당본풀이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당신과 관련하여 곳에서 방울뿔이라는 제차가 있다. 방울뿔은 방울친이라고 하는 긴 무명을 매듭지어 놓고 이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신의 맺힌 간장을 풀어 주는 제차이다. 방울뿔을 하기 위하여 방울친과 함께 이 칠성의 신상을 준비한다.

2. ‘안칠성’ 과 ‘뱃칠성’ 이 가져다주는 풍요

[제주도 칠성]

제주도의 민간신앙 가운데 칠성이라고 전승되는 뱀 신앙도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뱀 신앙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신앙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칠성이 가장 핵심적인 뱀 신앙이다. 칠성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뱀을 두고 칠성(七星)이라고 인식한다. 이 칠성은 부군칠성(府君七星) 혹은 안칠성과 뱃칠성 등이라고도 하며 부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긴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제주의 뱀 신앙 양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에서 풍속에 뱀을 매우 꺼리며 신이라 여겨 받들고, 보면 술을 바쳐 빌며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한다고 적었다(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에서는 섬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구렁이와 뱀을 가리지 않고 보면 문득 돌아가신 조상의 신령과 같이 여겨 반드시 고운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빌며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島人則勿論蟒蛇 見之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 灑而祈之 切不殺害).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제주의 뱀 풍속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고문헌마다 제주에 뱀이 많고 여기저기에 출몰하며 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칠성은 조상신, 당신, 일반신 등으로 다양하게 섬겨지고 있다. 관련 본풀이 전승도 여럿이다. 칠성본풀이에도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조상신 성격은 본풀이에서 특정 개인과 뱀신이 결연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함덕리의 일곱 잠수와 송침지 영감, 제주시 칠성골의 송대장 부인 등과 결연하여 부자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다. 당신 성격은 함덕리에서 칠성당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제주도 마을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신 성격은 제주도 대부분 가정에서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좌정하여 부신(富神)의 역할을 하는 양상에서 드러난다. 어느 한 개인이나 마을이 아닌 보편적인 신으로 인식된 결과이다. 결국 칠성본풀이의 내용에서 칠성은 애초에는 조상신에서 출발하여 당신으로 확대되다가 보편적인 일반신으로 그 성격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민이 뱀을 모실 때는 ‘테운 조상’이라 하여 자신에게 타고난 조상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적극적으로 조상을 맞아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뱀은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특정한 신앙민과 결연한다. 무곡장사를 다녀오다 배 밑이 터지는 조난사고를 당한다거나, 양곡을 얻는 과정이거나, 굶 혹은 제사를 지내다 뱀을 조상으로 모시게 된다. 이러한 특별한 계기와 내력을 통하여 생긴 존재가 한 집안의 조상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테운 조상이라는 관념은 칠성 조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무속에서 특별한 계기로 결연을 할 때 두루 나타난다. 테운 조상은 극진히 잘 모시면 신앙민에게 명(命)과 복(福)을 주는 존재이다. 만약 조상에게 소홀히 하면 더 나은 단골을 찾아 떠나버린다.

[안칠성과 밧칠성]

칠성본풀이 후반부에 뱀들은 칠성골 송대장 집에서 나와 다시 좌정처를 구한다. 이때 관청(官廳), 동헌(東軒), 마방(馬房), 과원(果園), 옥(獄), 이방(吏房)/형방(刑房)/사령방(使令房), 고팡, 칠성눌 등의 좌정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은 ‘고팡’(庫房)과 ‘칠성눌’이다. 칠성의 좌정처로써 고팡과 칠성눌의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칠성본풀이의 내용이다. 안칠성은 집안의 고팡에 좌정한 신이다. 밧칠성은 집 뒤꼍에 칠성눌을

만들어 모신다. 주로 곡신(穀神)적 성격을 가지니 자연히 부신(富神)의 속성을 드러낸다.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문전제(문전철갈이) 같은 가정신앙 의례에서도 기원을 한다. 칠성은 가신(家神)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제주도 무속에서 안칠성은 뚜렷하게 뱀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밧칠성에 대한 신앙 양상은 안칠성에 견주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밧칠성을 모시는 집안도 있고 모시지 않는 집안도 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후대로 전승하면서 모시지 않는 양상이 늘어난 것인지 확실히 추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래도 누구나 대체로 안칠성을 모신다는 점에 견주어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 둘째, 밧칠성의 존재 양상이 다양하고 행제(行祭) 방법도 비밀스러운 편이다. 실제 마을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안칠성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밧칠성에 대한 제보는 쉽게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표정도 사뭇 느낄 수 있다. 집 뒤꼍의 칠성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뱀과 관련한 밧칠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밧칠성에 여러 가지 신앙 양상이 혼합되면서 점점 비의적인 신앙으로 변화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진 11> 안고팡(서재철 사진, 제주학아카이브)



<사진 12> 밧칠성(강만보 사진, 제주학아카이브)

[큰곳의 각도비념, 칠성새남곳]

개인집의 일반적인 곳에서는 큰곳의 ‘각도비념’ 과 ‘칠성새남곳’ 등이 칠성본풀이와 밀접하다. 각도비념은 곳의 후반부에 집안에서 모시는 가신들을 위하여 기원하는 제차를 말한다. 칠성새남곳은 뱀을 죽였거나

또는 죽은 뱀을 보아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 문점(問占)을 하여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뱀을 죽였거나 혹은 우연히 죽은 뱀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칠성새남굿을 하게 된다. 굿의 핵심사항은 환자가 뱀을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진 13> 허맹이

어떤 다른 존재가 뱀을 죽였고 환자는 우연히 죽은 뱀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써서 병에 걸렸다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뱀을 죽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중에 뱀을 죽인 존재는 악신(惡神)인 ‘허맹이’ (사람 형상을 흉내 내어 만든 일종의 허수아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환자에게는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 이어 죽은 뱀을 다시 살려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칠성 신명(神名)]

제주에서 뱀을 두고 칠성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북두칠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 사람 처지에서는 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해당 집안에서 뱀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당신이나 일반신으로서 보편적 곡신인 뱀 신앙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그 내력을 중시하여 본풀이도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뱀에 대한 인식 재고는 달리 말하면 뱀 신앙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신앙에 대한 탄압에 맞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뱀 신앙의 지속과 안정성을 위하여 북두칠성 신앙을 활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뱀 신앙과 칠성신앙을 결합한 셈이다. 칠성본풀이 서두에 나오는 북두칠성 대상의 기자치성 칠성제 화소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부적으로는 뱀에 칠성이라는 외피를 씌우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걸이 기록한 부군신령(府君神靈)이 곧 부군칠성(府君七星)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개인들이 모시던 뱀 조상도 이제는 부군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뱀과 북두칠성 신앙의 결합을 통하여 뱀에

칠성이라는 외피를 씌운 결과 뱀은 단순한 혐오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뱀 신앙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뱀의 부신(富神) 혹은 풍요신(豊饒神) 성격과 북두칠성의 수복신(壽福神) 성격은 두 신앙을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교집합이었을 것이다. (이 글은 제주신화학고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 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